

독립운동 정보자원의 장기 보존과 활용을 위한 관련 데이터베이스 실태조사 및 분석 연구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Analysis of Databases for
the Long-Term Preservation and Utilization of Independence
Movement Information Resources

백재은(Jaeeun Baek)

E-mail: jaeeunb@duksung.ac.kr

덕성여자대학교 글로벌융합대학 문헌정보학과 교수



논문접수 2026-07-27
최초심사 2026-07-30
게재확정 2026-08-19

ORCID

Jaeeun Baek
<https://orcid.org/0009-0000-0673-2868>

초 록

한국 독립운동 정보자원은 일제의 탄압에 항거한 우리 민족의 중요한 역사 기록물로, 후대에 계승해야 하는 필수적인 지식 정보이다. 현재 이들은 국내외 많은 기관에서 관리되며 이용을 위해 자체 데이터베이스와 웹 사이트에서 구축되어 서비스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역사적·정보적·증거적 가치가 높은 독립운동 정보자원의 올바른 활용과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관련 시스템을 활용하여 특성을 고찰하고 발전 방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연구 대상은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국가기록포털’, ‘국가유산 포털’, ‘국사편찬위원회 포털’,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이용하여 독립운동 정보자원의 주제와 유형, 기술 항목, 관계성 등에 대해 조사 및 분석하였다. 그 결과, 현행 시스템은 유관 기관에의 정보자원 분산에 따른 접근성 저하, 독립운동 정보자원 간 계층 구조 및 유기적 관계성 부재, 메타데이터 표준화 미비, 한자 및 필사본 해독의 기술적 한계라는 유의미한 한계점을 보여주고 있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립운동 정보자원의 적극적인 활용과 올바른 장기 보존을 위한 방안으로 정보자원에 대한 다각적인 양·질적 선행 조사와 계층 구조 정립, 이를 바탕으로 표준화된 메타데이터 스키마 개발, 그리고 직관적인 UI/UX를 탑재한 이용자 중심의 독립운동 전문 플랫폼 구축을 제안하였다.

ABSTRACT

Information resources on Korea's independence movement constitute important historical records documenting the Korean people's resistance to Japanese colonial rule and valuable sources of knowledge that should be preserved and passed on to future generations. Currently, these resources are managed by numerous institutions in Korea and abroad and made available through institution-specific databases and websites. To identify directions for the effective utilization and systematic management of these historically, informationally, and evidentially valuable resources, this study analyzes major information systems related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focusing on the subject areas, types, descriptive elements, and relationships of the resources. The findings reveal several significant limitations in the current systems, including reduced accessibility resulting from the dispersal of information resources across related institutions, the lack of hierarchical structures and interconnected relationships among resources, insufficient standardization of metadata, and technical limitations in interpreting Chinese characters and handwritten manuscripts. Based on the results, this study proposes conducting comprehensive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preliminary surveys, establishing hierarchical structures for the resources, developing a standardized metadata schema based on the findings, and constructing a user-centered specialized platform with an intuitive UI/UX.

Keywords: 기록 관리, 독립운동 정보자원, 데이터베이스, 한국 독립운동, 한국 역사
Records Management, Independence Movement Information Resources, Databases,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Korean History

© 한국기록관리학회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NonCommercial-NoDerivatives 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which permits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at the article is properly cited, the use is non-commercial and no modifications or adaptations are made.

<https://jksarm.koar.kr>

www.kci.go.kr

1. 서론

1.1 연구의 배경

1910년 일한병탄(日韓併呑)으로 대한민국은 국권이 피탈되었고 일본 제국주의(일제)에 의한 정치 탄압, 경제 수탈, 식민 통치, 문화 및 예술의 말살 등이 일제강점기와 함께 시작되었다. 국가적 치욕 가운데 자주독립(自主獨立)을 위한 우리 국민의 일제에 맞선 수많은 항쟁과 투쟁 - 군사 투쟁, 의열 투쟁, 민중 중심 운동(의병 운동, 학생 항일 운동, 3.1운동, 외교 독립운동, 임시정부 활동 등) - 은 지속되었고 세계 각지에서의 항거는 ‘독립’에 대한 국민적 염원과 의식을 더욱 높이며 참여와 활동을 본격화시켰다.

‘대한 독립(大韓 獨立)’을 위해 이와 관련한/관련된 기록물 및 정보자원은 장기간 국내외에서 생산되고 있다. 특히 ‘독립운동’에 관한 지식 정보는 우리 국민의 주체적 해방과 광복에 있어 큰 역할을 다룬 정보자원으로, 상위 카테고리 독립과 독립운동 아래에서 시기, 활동, 지역/장소, 인물, 사건 등 다양한 주제, 내용, 유형 등으로 작성되어 있다. 이들은 일차적으로 과거 일제의 탄압 속에서 독립을 위해 필요한 정보자원, 예를 들면 행형(行刑),¹⁾ 학무(學務),²⁾ 행정, 생활, 개인 기록 등의 다양한 주제와 내용 아래 문서, 지도, 사진, 영상, 의복, 식기, 각종 도구 등의 유형으로 제작되어 사용되었고, 현재 이차적으로 ‘독립’에 대한 객관적 사실이자 증거적 가치를 지닌 우리나라의 정통성과 정체성을 보여주는 기록, 역사의 과(功)와 실(失)을 모두 담아 시대적 상황을 정확하게 기술하는 정보 및 교육 자료 등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립운동’에 대한 지식 정보는 원 사료(기록물)뿐 아니라 도서(아동서 포함), 문헌(보고서, 자료집 등), 영화, 드라마 등과 같은 여러 매체에 의해 전파되어 우리는 이들을 통해 직간접적으로 일제강점기 시기를 경험하고 접근, 학습하며 역사적 지식을 확장하고 있다. 더욱이 디지털 뉴미디어(숏폼, 릴스 등 포함)에서 인공지능(AI)으로 복원한 독립운동(가) 관련 콘텐츠가 다수 제작되고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콘텐츠 생산이 활발해지면서(최남주, 2026) MZ세대를 중심으로 SNS를 통해 태극기를 게양하고 광복절을 기념하는 등의 문화로 새롭게 생성되기 시작했다(유지희, 2024). 이에 현대 사회에서 독립운동 지식 정보의 중요성과 필요성, 교육적·문화적 활용 가치는 지속적으로 향상되어 인식되고 있고, 독립운동에 대한 흥미와 정보자원의 활용도 어린이·청소년을 포함한 모든 세대에서 점차 높아지고 있다. 독립운동 정보자원에 접근하여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기관, 공공기관과 함께 국내외 많은 민간기관 등에서는 원본부터 해외 사료까지 대량의 기록물을 수집하여 온오프라인에서 관리하고 있다. 특히 각 기관의 DB 혹은 웹 사이트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하여 이용 및 접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독립운동 정보자원의 이용, 관리, 보존 그리고 보존(保全)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일반 대중에게 제공하는 시스템은 아직 부족하고 이들 시스템에 관한 관심, 관련 중점 연구도 아직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 않다(서수리, 조우제, 2023).

‘독립’과 ‘독립운동’에 관한 모든 정보자원은 우리나라와 국민에게 있어 반드시 기억하고 보존하여 장래(將來)에 정확하고 올바르게 전달해야 하는 지식 정보이다(백재은, 2026). 이에 대한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정확하고 올바르게 교육하며 새로운 정보자원을 제작하고 표현하기 위해 현시점에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관점은 독립운동 정보자원의 올바른 수집, 관리, 보존 그리고 이용을 위한 시스템 구축이다. 특히 독립운동 정보자원의 지속적인 활용과 장기 보존을 위해서 독립운동 정보자원에 대한 객관적인 분석, 관련 DB에 대한 실태 조사 및 고찰이 필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모든 세대에게 올바르게 정확한 역사를 계승하고 사회·문화적 관심 향상이 지속될 수 있도록 독립운동(가) 정보자원을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 독립운동 정보자원을 관리 및 서비스하는 DB와 웹 사이트 시스템을 조사 및 분석하여 앞으로의 발전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1) 수형자를 격리해 교정·교화하고 사회복귀를 돕는 목적을 갖는 제도.
2) 학사에 관한 사무.

1.2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독립운동’ 관련 정보자원을 장기 관리 및 보존하며 일반 이용자가 쉽고 빠르게 접근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현재 국내 기관에서 운영하는 독립운동 정보자원 DB와 웹 사이트 시스템의 현황 조사 및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리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우선, 첫 번째 연구 대상은 독립운동 정보자원을 구축하여 서비스하는 DB와 웹 사이트 시스템 가운데 대한민국 독립 정신 함양을 위해 설립된 독립기념관의 ‘한국 독립운동 정보시스템’을 중심으로 독립기념관에서 소개하는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살펴보았다. 각 기관의 역할 및 기능에 따른 여러 유형의 정보자원을 조사하기 위해 이들 가운데 정부 기관(국가기록원)의 ‘국가 기록 포털’, 박물관/기념관의 역할을 하는 ‘국가유산 포털’, 한국사 연구원이 운영하는 ‘국사편찬위원회 포털(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우리역사넷,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전자 사료관 등)’, 그리고 백과사전의 기능을 가진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을 선정하였다. 이어서 실태조사는 각 기관의 DB와 웹 사이트 검색 시스템을 대상으로 기본 검색(키워드 검색)과 상세 검색(키워드, 시대/시기, 유형, 분야)을 진행하였다. ‘한국 독립운동 정보시스템’을 제외한 DB들은 독립운동 정보자원을 주요 대상으로 관리하고 있지 않고 선사시대부터 많은 기록물을 다루고 있어 본 연구에서는 독립운동 정보자원에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위해 하나의 주된 키워드 ‘독립운동’을 지정하고, 시대는 독립운동이 시작된 ‘근세, 19세기 말, 조선 말기부터 근대,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³⁾ 그리고 현대’를 검색 조건으로 동일 설정하여 2026년 1월부터 약 6개월에 걸쳐 각 DB를 3회⁴⁾씩 검색 및 조사를 진행하였다. 단, 이들 DB에서 제공하는 독립운동 정보자원에 제한을 두지 않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모든 검색 방식에 단일 키워드만을 사용하여 이는 본 연구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이어서 두 번째, 검색 결과를 바탕으로 독립운동 정보자원의 특징과 이들 DB의 서비스 현황을 조사하고 이들을 주제, 요소, 유형, 관계 등에서 접근하기 위해 기록의 요소 ‘내용, 구조, 맥락’의 관점을 적용하였다. 기록의 ‘구조’와 ‘맥락’을 확인하기 위해 독립운동 정보자원의 식별, 검색, 접근을 위해 설계된 기술 속성(Descriptive attribute)을 수집하여 ① 정보자원이 생산된 물리적 형태(유형), 생산/제작/발행의 배경과 환경(생산 주체, 생산 일시, 관련된 업무 및 활동, 다른 기록과의 관계 등)에 대해 살펴보고, ② 기록의 ‘내용’으로 독립운동 정보자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와 시대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이들에 대한 전반적인 고찰을 진행하여 독립운동에 대한 역사적 가치를 전승하고 현대적 관점에서 올바르게 접근, 이용, 식별, 관리, 보존할 수 있도록 독립운동 정보자원을 위한 시스템을 구상 및 설계하여 제시하였다.

1.3 관련 연구

독립운동 관련 연구는 인문학(사학, 문학, 정치외교학 등)을 중심으로 독립운동사(역사), 독립운동가(인물), 독립운동 성과(활동 및 사건) 등에서 중점적으로 실행되고 있다. 사회과학, 복합학, 자연과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점차 확대되어 진행되고 있으나, 독립운동 정보자원과 이들의 이용, 관리, 보존을 실행하는 시스템에 대한 연구적 관심은 아직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운동 정보자원의 이용 및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 디지털 아카이브 설계를 다룬 연구를 주된 대상으로 본 연구와의 관련성을 확인하여 다음과 같이 나열하였다.

3) 독립운동에 관련된 시기와 시대는 2장 한국 독립운동가 시대적 흐름에서 조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재확인하였고 이를 검색 조건 및 결과로 적용하였다.

4) 2026년 1월 30일부터 2월 5일, 3월 20일부터 4월 3일, 5월 29일부터 6월 5일까지 3회 진행하였다.

우선, 서수리, 조우제(2023)는 독립기념관이 운영하는 <한국 독립운동 정보시스템>, <국내 독립운동·국가 수호 사적지>, <국외 독립운동 사적지>, <한국 독립운동 인명사전>을 연구 대상으로 독립운동 정보시스템의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현재 각 시스템에서는 분야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독립운동 정보시스템에서 관련 정보들로 확장해 나갈 수 있는 상호 연계가 구현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하며 독립운동에 관한 정보 조직과 역사적 맥락(context)을 통해 독립운동이 가진 연계성을 확장해 나갈 수 있도록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과 함께 3가지의 구현 전략 - 다층적 시스템, 독립운동 지식의 관계망, 데이터 큐레이션 콘텐츠 - 을 제안하였다. 이 논문을 통해 독립운동 관련 정보시스템의 현황과 정보시스템 및 디지털 아카이브의 구축을 위해 독립운동 정보자원이 가진 역사적 맥락과 관계 확인이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와 같은 관점을 본 연구에 도입하여 고찰하였다. 단, 독립운동 정보자원 시스템의 문제점으로 독립운동의 연계성에 중점을 두고 있는 이 논문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독립운동 관련 시스템과 정보자원 전반을 조사하였고 일반 이용자의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안을 시스템 구축으로 기술하였다. 이어서 오정희, 정연경(2018)은 독립운동 기록물 서비스를 확장하고 이용자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국가보훈처의 공훈전자자료관 컬렉션을 기반으로 독립운동 컬렉션에 대한 분류 체계를 8개의 출처별, 8개의 주제별, 17개의 유형별로 계층 구성하여 제안하였다. 이 논문은 분류 체계 작성을 위한 기초 연구로, 각 영역에서 조사된 결과를 바탕으로 독립운동 정보자원이 여러 기관에 분산되어 있고 이들을 나타내는 주제와 유형도 다양하게 표현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독립운동 기록물을 출처, 주제, 유형으로 구분하여 계층 구성을 할 수 있다는 관점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독립운동 정보자원에 있어 계층이 필요하고 관련 DB와 독립운동 정보자원의 관계에 출처, 주제, 유형 등을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을 검토하여 적용하였다. 그리고 이들 정보자원의 기술 요소를 통해 독립운동 정보자원조사 항목 - 내용(주제와 시기), 구조(유형, 출처, 환경 등) - 을 정립하여 구성하였다.

그리고 장우권(2015)은 문헌정보와 아카이브적 측면에서 학생 독립운동의 지식정보자원 관리를 위해 효율적인 자료수집, DB 구축 및 아카이브를 제시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학생 독립운동 관련 문헌에 대한 고찰과 함께 생성된 자료들의 유통 및 관리에 대한 실제적인 조사를 진행하였고, 자료의 수집을 통해 DB 구축, 메타데이터 서지정보 포맷과 항목을 설계하여 제공하였다. 그리고 메타데이터의 입·출력 화면을 예시로 제공하여 독립운동을 주제로 구축한 메타데이터를 자료의 유형 - 개인 기록, 낱장자료, 재판 기록 - 에 따라 명시하며 제시하고 있었다. 이 논문은 본 연구의 주제이자 연구 대상이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으나 일제강점기의 독립운동과 독립운동 정보자원이라는 관점에서 일차 관련성을 나타내고 있고, 독립운동 정보자원의 다양성과 함께 메타데이터의 예시를 제공하고 있어 추후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독립운동 정보자원 관련 DB의 메타데이터 설계 및 구축에 적용하여 활용하고자 하였다.

2. 한국 독립운동과 시대적 흐름

1905년 대한민국은 일제에 의해 을사늑약이 강제 체결되고 외교권이 박탈되면서 본격적으로 국권 침탈, 정치·경제 수탈, 문화 통치, 민족 말살 등이 시작되었다. 1910년 일제가 식민지로 강점하면서 우리 국민은 국가 주권의 회복과 자주독립을 위해 다수의 결사대, 의병, 농민, 의열단 등을 조직하였고, 무장 투쟁과 시위, 전투, 해외 특사 파견 등으로 전 세계에서 본격적인 독립운동(獨立運動)을 진행하였다(국사편찬위원회, 발행년불명a). 그러나 현재 독립운동이 시작된 시기와 활동, 참여한 독립운동가 등에 대한 정보는 아직 명확히 정립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정의와 범주를 기술하는 것은 쉽지 않다. 독립운동(가) 관련 기관의 여러 데이터베이스에 혼재된 기술을 바탕으로 정리하여 간단히 살펴보면, ‘한국 독립운동’은 대략 19세기 후반 개항기부터 1945년 8월 15일까지 일본 제국주의 침략에 항거하며 대한민국의 독립과 광복을 목표로 독립운동가와 시민에 의해 일어난 일체 항일 운동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 독립운동’과 독립운동의 진행을 시대별로 좀 더 정확하게 살펴보기 위해 ‘독립운동’ 관련 논문, 각종 DB와 웹사이트(한국 독립운동 정보시스템, 공훈 전자 사료관, 한국 근대 사료 DB,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우리역사넷 등)를 활용하여 1876년 강화도조약 이후 일어난 여러 민족운동 가운데 주요 독립운동을 시대적 상황과 흐름에 따라 확인하여 순차적으로 정리하였다(<표 1> 참조).

<표 1> 한국 독립운동의 시대별 흐름

시대적 사건 및 관련 독립운동			독립운동 내용
근세	조선	~ 1875년	• 고종 즉위
근대	개항기,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	1876년 강화도조약	• 조선과 일본 사이 체결된 불평등한 조약으로 항일 운동 의식 발전 • 시작
		1895년 을미사변	• 항일 의병 확산 및 운동 시작
		1904년 한일의정서	• 한일의정서를 반대하며 유생의 상소 운동
		1905년 을사늑약	• 을사늑약 반대 상소 운동 - 전국적 • 전민족적 투쟁
		1907년 정미의병	• 일제의 고종 강제 퇴위, 한일 신협약 강제 체결, 군대 해산 등으로 반일 감정 고조 • 해산당한 군인들이 시위 • 무장 투쟁을 시작하며 전국 각지의 의병 활동을 고취, 전국적인 의병 항쟁으로 확대
		1909년 안중근 의거	• 안중근 의사 항일 비밀결사를 조직해 이토 히로부미 사살 • 하얼빈 의거
		1912년 독립군 기지 건설	• 신민회의 주도 아래 중국 서간도에 독립운동 기지 건설
		1915년 대한광복회 조직	• 독립운동 단체 설립(대한광복회 등)
		1919년 3·1 운동,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 전국적 비폭력 항일 운동 - 3·1 운동 •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상해)
		1920년 봉오동 전투, 청산리 대첩	• 일제가 홍범도가 지휘하는 대한 독립군의 본부 봉오동 공격 • 김좌진 장군이 이끈 독립군 부대가 청산리 80리 계곡에서 전투
		1926년 6·10 만세운동	• 대한제국의 황제 순종(純宗)의 장례식을 기해 일어난 독립 만세운동 • 3·1 운동을 따르는 전국적 • 전 민족적 항일 운동
		1929년 광주학생독립운동 (혹은 광주학생항일운동)	• 조국을 구해야겠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학생들 스스로 결기 • 전라남도 광주에서 시작하여 전국적으로 확대, 전국 학생운동으로 전개 및 발전
현대		1932년 윤봉길 의거, 이봉창 의거	•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한인애국단 주도로 이봉창 의사의 동경 의거와 윤봉길 의사의 상해 의거
		1945년 8월 15일 ~ 현재	• 우리나라가 일제의 식민 통치로부터 독립 • 광복

1876년 조선과 일본의 불평등한 강화도조약 체결로 대한민국에 일본 식민주의 침략이 시작되었다. 1895년 을미사변으로 국민 내 반일 감정이 고조되면서 국내를 중심으로 자주독립 의식 형성과 함께 항일 운동이 본격화 되고, 1904년 강제적인 한일의정서와 을사늑약 진행으로 이를 반대하는 유생들의 상소 운동이 전민족적 투쟁으로 이어졌다. 1907년 고종의 강제 퇴위와 군대 해산의 강행으로 의병 항쟁은 더욱 확대되었고, 1909년 안중근 의사에 의한 일본 내각총리대신 이토 히로부미 사살로 독립운동에 대한 쾌거와 활동에 진척을 보이며 독립군 기지 건설, 독립운동 단체 설립이 적극적으로 진행되었다. 1차 세계 대전이 종료되면서 파리강화회의의 한국 대표 파견, 독립 선언, 대중적 시위운동 등 국내외에서 다양한 방식의 독립운동이 이어졌고, 1919년 3월 1일 독립선언문 발표와 함께 전국적 비폭력 항일 운동이 일어났다. 이를 기틀로 중국 상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되면서 의열단, 각종 결사대가 다수 조직되었고, 이와 동시에 일제의 통치 탄압이 더욱 강해져 독립군과의 빈번한 전투, 1920년 봉오동 전투와 청산리 대첩 등이 발생하였다. 1920년대에 들어와 독립운동(가)의 활동이 침체되

는 가운데 1926년 대한제국의 황제 순종(純宗)의 장례식을 기해 6·10 만세운동이 일어났고, 이는 조직적이며 집단적인 항일 학생운동으로 이어졌다. 1929년 전라남도 광주에서 광주 학생 독립운동이 켜기하며 전국민적 항일 투쟁은 전국으로 확대되었고, 1932년 독립군 윤봉길 의사와 이봉창 의사의 의거로 국외 활동 무장 투쟁도 더욱 강화되며 우리 국민의 항일 운동은 세계 각지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었다. 1895년부터 약 50년간 이어진 불굴의 항거와 투쟁은 1945년 2차 세계 대전의 종전과 일제의 무조건적 항복으로 끝이 났고, 대한민국은 독립운동의 결실과 독립에 대한 의지로 8월 15일 광복을 맞이하였다. 일제강점기는 우리나라에 있어 치욕스러운 시대이지만 자주적이고 투쟁적인 독립운동을 통해 우리 민족이 스스로 국권을 되찾은 뜻깊은 역사이다. 대한민국에서 독립운동은 외세의 지배와 침략으로부터 국권을 지키고 주권을 되찾기 위한 반외세 항일 운동(국가기록원, 발행년불명)이자 독립을 회복하기 위해 전개된 일련의 투쟁으로, 개화기 이후 일제의 식민지 지배에 맞서 국권 회복, 민족 자결, 자주 국가 건설을 목표로 전개된 모든 활동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이들은 무장 투쟁, 비폭력 운동, 국외 외교활동, 군사, 문화·예술, 교육 운동 등 다양한 방식으로 국민의 염원과 목표를 위해 각종 활동을 실행했다.

‘한국 독립운동’은 관련 연구와 본 조사에서 살펴보았듯이 역사적 맥락과 인과 관계 등을 나타내고 있어 독립운동 정보자원 관련 시스템을 조사 및 분석하기 위해서는 정보자원에 대한 명확한 파악이 필요하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역사적, 정보적, 사회적, 교육적, 증거적 가치를 지닌 정보자원을 올바르게 관리 및 보존하고 계승하여 장래(將來)에 활용할 수 있도록 3장에서 현재 구축되어 서비스되고 있는 독립운동 정보자원 관련 시스템을 다각도의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를 위해 본 장에서 살펴본 ‘한국 독립운동의 시대별 흐름과 상황’을 활용하여 핵심어(주제와 인물, 시대)를 추출하여 한국사 데이터베이스와 비교 및 확인하였고, 이를 독립운동 정보자원 관련 시스템의 기술 속성에서 표현되는 정보자원의 내용과 주제, 주제 간의 관련성, 시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기초자료로 이용하였다.

3. 독립운동 정보자원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현황 조사 및 실태 분석

3.1 독립운동 정보자원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특성 및 현황

19세기 후반부터 일본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 통치와 수많은 탄압이 시작되면서 우리 국민은 세계 각지에서 독립운동을 일으켰고 이와 관련한/관련된 여러 유형의 정보자원을 생산하였다. 독립운동 정보자원은 ‘독립, 광복, 항일, 친일 등’ 다각도 주제와 인물, 지역/장소, 배경/목적 등에 따라 한시적 기록이 아닌 1차 자료, 2차 자료의 유형과 내용으로 작성 및 축적되었고 그로 인해 양적·질적인 면에서 모두 광범위하고 방대하다. 현재 이들은 역사와 교육을 전달하는 정보이자 중요한 사료(史料)로 활용되고 있다. 올바른 역사 전달 및 교육을 위해 국가적 차원에서 수집, 관리, 보존이 진행되며 정부 기관, 박물관, 기념관, 기록관, 도서관 등에서 온오프라인을 통해 다양한 방식으로 서비스되고 있다. 그래서 본 장에서는 이용자가 독립운동 정보자원을 손쉽게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발전 방안을 구상하기에 앞서 현재 구축된 독립운동 정보자원을 관리 및 서비스하는 관련 DB와 웹 사이트 시스템 - ㉠ 한국 독립운동 정보시스템(독립기념관, 발행년불명), ㉡ 국가 기록 포털(기록물 컬렉션(국가기록원, 발행년불명b),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국가기록원, 발행년불명c)), ㉢ 국가유산청(발행년불명), ㉣ 국사편찬위원회 포털(국사편찬위원회, 발행년불명b), 우리역사넷(국사편찬위원회, 발행년불명c),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국사편찬위원회, 발행년불명d), 전자 사료관(국사편찬위원회, 발행년불명e) 등), ㉤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한국학중앙연구원, 발행년불명) - 을 이용하여 이들이 가진 특성과 현황에 관해 간단히 살펴보았다(<표 2> 참조).

〈표 2〉 독립운동 정보자원 관련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살펴본 다각도 특성

항목	㉠ 한국 독립운동 정보시스템	㉡ 국가 기록 포털	㉢ 국가유산 포털	㉣ 국사편찬위원회 포털	㉤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구조 & 맥락	공통 기술 항목	• 자료명	• 제목	• 제목(영문/한자)	• 제목(한자)
		• 자료 번호, 시대/색인, 수량/유형/재질/재원, 생산자/생산처, 생산년도, 이미지, 자료 내용	• 관리 번호, 수량/유형, 생산/관리 기관, 생산/등록 일자, 이미지, 원문 보기(서비스), 설명	• 시대/분류, 유형(수량/재질), 소재지, 지정(등록)일, 발행연도/설치년도, 이미지(파일 해상도/용량), 내용	• 시대/주제어, 유형, 게재/발행지, 발행처, 발행일, 이미지, 목차, 내용
		• 관련 이미지	-	• 관련 이미지	• 관련 자료 • 참고 자료
		-	• 상하 컬렉션(계층)	-	-
유형		• 종이 기록물(전적문서, 신문, 지도, 책, 포스터, 서예) • 시청각 기록물(사진, 테이프, 레코드, CD, 필름) • 행정 박물(군사품, 조각/공예, 악기, 생활품, 문방구, 형장구, 악기, 복식) • 전자 기록물 • 간행물(총서, 보고서) 등	• 종이 기록물(문헌, 문서, 도서, 판결문) • 시청각 기록물(사진, 필름) • 전자 기록물(이미지 전자파일) • 간행물(정부간행물, 자료집) 등	• 종이 기록물(독립신문, 관련 원고, 호소문, 선언문, 책) • 행정 박물(유적 건조물, 건축물, 생가(사저, 사적지, 묘역), 안내판) • 전자 기록물(동영상 전자파일) • 간행물(자료집, 조사 및 회의록) 등	• 종이 기록물(도서, 연구 논저) • 시청각 기록물(사진, 필름) • 전자 기록물(이미지, 동영상 전자파일, 전자사전) • 간행물(각종 총서 및 사전) 등
		• 종이 기록물(문헌, 문서, 신문, 원고, 선언서, 도서, 봉투) • 행정 박물(건축, 생가지 기념품, 사적지, 유적, 의복, 인장, 태극기) • 전자 기록물(이미지 전자파일, 음성 재생 파일, 전자사전) 등			
맥락 & 내용	주제	• 애국계몽운동, 만세 시위운동, 3·1운동, 독립협회, 독립운동가, 미주홍사단, 의병, 한국광복군, 일제강점기, 대한민국민회, 대한민국 임시정부 등	• 독립운동, 3·1운동, 조선의용군, 의병, 항일 투쟁, 임시정부, 민족운동, 판결 등	• 독립운동, 독립운동가, 독립신문, 대한민국 임시정부, 항일 운동 등	• 독립운동, 항일 운동, 3·1운동, 조선 소요사건,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 운동사, 동학농민혁명, 만주 독립운동, 일본군 위안부, 전쟁범죄, 일제강점기, 고종, 친일파, 반민특위 조사 등
	시대	• 연대, 시대, 시기(미상, 근세(조선), 근대(개항기, 일제강점기, 대한제국기), 현대(미군 정권, 대한민국기) 등)	• 연도(10년 단위), 의병 운동 시기(1941~1950, 미상, 의병 운동 전기 등)	• 연도, 연대, 시대, 시기, 세기(근대, 1894년, 일제강점기 18~19세기 등)	• 연대와 시대, 시기(18~19세기, 일제강점기, 근대, 현대, 조선 등)

첫 번째 독립운동 정보자원 관련 시스템의 검색 서비스를 통해 살펴본 기술 속성(descriptive attribute)은 기관의 설립 목적과 기술 대상에 따라 다양하게 작성되어 있어 명칭과 범위에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각 시스템에서 공통으로 적용하는 항목을 비교하여 확인한 결과, 크게 3개의 관점 - ‘기본 정보, 내용 정보, 참고(참조) 정보’로 구분되어 설계되어 있었다. ‘기본 정보’는 ‘자료명 혹은 제목, 주제 분류·구분, 시대, 형태사항(유형, 수량, 재질 등), 발행·생산 사항, 설명(정의, 개요 등), 이미지 원문 보기’로 구성되어 있고, ‘내용 정보’는 ‘상세 내용’, 그리고 ‘참고(참조) 정보’는 ‘관련 이미지, 참고문헌, 참고 자료’로 기술되어 있었다. 이들은 명칭의 표현에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었으나 유사한 의미, 기능으로 사용되고 있었다. 그리고 이 외의 기타 항목으로 ‘저작권 정보’, ‘인물 정보’, ‘위치정보’ 등이 포함되어 정보자원을 설명하고 있었다.

이어서 기술 속성의 내용을 바탕으로 두 번째, ① 정보자원의 물리적 형태(유형), 생산/제작/발행의 배경과 환경, ② 독립운동 정보자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와 시대에 대해 살펴보았다. 우선, ① 독립운동 정보자원의 물리적 형태(유형)을 나타내는 기술 항목 - 유형, 재원, 재질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기관에 따라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고, 기록물의 형태로 종이 기록물(도서, 문서, 신문, 원고, 선언서, 편지 등), 시청각 기록물(사진, 필름, 영상 등), 행정 박물(기념비, 태극기, 건축물, 의복 등), 간행물(보고서, 자료집, 총서 등), 전자 기록물(웹 사이트의 웹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었다. 대부분 종이 기록물과 간행물이 주된 유형으로, 기관에서 발행한 보고서와 자료집이 상당수 포함되어 있었다. 단, 종이 기록물, 시청각 기록물, 행정 박물의 대부분은 디지털화되어 웹 사이트에서

원물(原物) 혹은 원문의 이미지(원문 보기, 다운로드)로 서비스되고 있었다.

그리고 ② 독립운동 정보자원의 내용을 표현하는 기술 항목 - 관련 키워드, 색인어, 분류 카테고리, 시대 등을 활용하여 독립운동 정보자원이 전달하고자 하는 핵심 주제와 시대를 조사한 결과, ‘독립운동’, 특히 앞서 2장에서 살펴본 3·1운동, 동학농민운동, 항일 운동과 관련된 주제를 중심으로, 일제의 탄압에 맞선 독립운동 관련 활동, 인물, 사건을 종합적으로 다루고 있었다. 또한 이들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의병, 독립군, 태극기, 독립신문 등’을 함께 표현하고 있었다. 독립운동 정보자원의 시대(배경)는 연도, 시기, 시대, 세기 등 다양한 표기 방식이 적용되어 있고, 일제강점기가 속한 ‘근대’가 주로 사용되고 있었다. 예를 들면, 연도와 세기는 연대 미상으로 표기되거나 정확한 연도(예를 들면 1894년 혹은 19세기)로 기재되어 있었다. 시대와 시기는 시대(시기)의 형태로 작성되어 선사부터 근세, 근대, 근현대, 현대까지의 모든 시대를 기술하고 있고, 독립운동이 일어난 근대를 중심으로 개항기, 일제강점기, 대한제국기, 의병 운동 전·중·후기와 같이 상세하게 구분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독립운동 정보자원 관련 DB와 웹 사이트 시스템을 살펴보기 위해 이들에게 제공하는 독립운동 정보자원의 기술 속성, 유형, 내용/주제, 시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고, 그 결과 이들은 기관의 설립 및 운영 목적, 정보자원의 유형에 따라 조금씩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다음에서는 기관별로 이들 시스템이 가진 특징을 추가 비교 정리하여 기술하였다(<표 3> 참조).

<표 3> 독립운동 정보자원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비교 분석

평가 항목	㉠ 한국 독립운동 정보시스템	㉡ 국가 기록 포털	㉢ 국가유산 포털	㉣ 국사편찬위원회 포털	㉤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
주요 제공 정보자원	1차 자료, 2차 자료 (중이 기록물, 행정 박물 다수)	1차 자료, 2차 자료	1차 자료, 2차 자료 (간행물 중심, 행정 박물 다수)	1차 자료, 2차 자료 (연구/교육 자료 중심)	2차 자료 (전자파일 중심)
검색 결과 일관성	보통	보통 (단, 경로별 결과 불일치 존재)	보통	미흡 (DB별 결과 차이)	보통 (단, 검색 정확성 결여)
메타데이터 표준성	보통 (기본 정보 미입력 존재)	양호 (상세 항목 구성)	보통 (단순한 항목 구성)	보통 (DB별 항목 상이)	보통
계층 구조 지원	미지원	우수 지원 (기록철/군 제공)	미지원	부분 지원 (목차 제공)	미지원
원문 서비스 (OCR/번역)	미흡 (이미지 중심 제공)	미흡	양호 (대본, 내레이션 제공)	양호 (번역본 제공)	보통 (해설 제공)

우선, 독립기념관에서 구축한 ㉠ ‘한국 독립운동 정보시스템’은 본 연구에서 조사한 시스템 가운데 가장 방대하고 다양한 유형의 정보자원(전체 49,619건, 73종)⁵⁾을 통합 관리하며 서비스하고 있었다. 정보자원은 독립운동 활동을 위해 생산되거나 독립운동가에 의해 사용된 물품으로, 종이 기록물(고서, 포스터, 서예, 문서, 도록, 공문서, 지도 등)이 전체의 70% 이상(34,788건)이었고, 시청각 기록물(사진, 사진, 구술자료, 민요 등), 간행물(총서 등), 행정 박물(악기, 형장구, 의복, 표식 등) 순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주제와 시대는 대부분 독립운동과 관련된 정보자원에 대해 기술되어 시대와 시기를 중점적으로 기술하고 있었다. 다만, 검색 결과에 독립운동과 관련이 적은 다양한 주제의 정보자원, 예를 들면 훈민정음, 세종대왕, 박정희, 김영삼, 남북 관계 등과 같은 현대 자료와 근현대 자료집, 전집 등이 다수 포함되어 있었고, 기술 항목에서 기본 정보가 제대로 입력되어 있지 않은 정보자원이 일부 존재하였다. 그리고 정부 기관(국가기록원)의 ㉡ ‘국가 기록 포털’에서는 기록물 컬렉션과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DB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기록물 컬렉션’은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2차 자료로 생산된 정보자

5) 각 DB에서 제시된 수치는 2026년 1월부터 약 6개월 동안 검색 서비스를 통해 3회씩 조사를 진행하여 최종 확인된 시점의 값이다.

원 혹은 업무자료가 상당수로, 종이 기록물(일반 문서, 신문 등), 시청각 기록물(사진, 영상, 음성 녹음 등), 간행물(정부간행물 등)의 유형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이들의 기술적(記述) 특징은 해당 정보자원(단일 정보자원)의 상위 카테고리를 표현하는 기록철/기록군(群), 컬렉션이 기술 항목으로 작성되어 정보자원의 계층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DB’는 대부분 인물 중심의 정보자원으로, ‘한국 독립운동 정보시스템’의 독립운동 인명사전과 유사하게 구성되어 있었다. 각 인물에 대한 판결문을 웹 페이지의 형식, 전자 기록물(전자파일)로 제작하여 기술 속성으로 간단한 인물 정보(이름, 본적/주소)와 판결문에 대한 상세 정보(죄명, 당시 나이, 주문(主文), 판결문 내용 및 이미지 등)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의 경우 여러 방식의 기본 검색이 설계되고 있었으나 방식에 따라 동일한 검색어에 서로 다른 검색 결과를 보이고 있었다.

박물관/기념관의 관점으로 국가유산청에 의해 구축된 ㉔ ‘국가유산 포털’은 독립운동과 관련하여 간행물(항일 독립운동 유적지 자료집, 관련 회의록 등)이 전체(전체 413건)의 50% 이상으로, 간행물을 제외한 정보자원은 종이 기록물(책, 외교 행정문서, 지도, 신문 등), 행정 박물(사적지, 종택, 묘역, 사저, 안내판, 태극기 등), 시청각 기록물(독립운동가에 대한 정보 영상) 순으로 지정 국가유산 정보가 다수 포함되어 있었다. 단, ‘독립운동’ 관련 1차 자료보다 2차 자료의 간행물, 특히 국가기관(문화재청, 국가유산청 등)에서 생산된 현대 자료, 연구집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었다. 기술 항목으로는 기술 항목은 ‘제목, 발행년도, 첨부파일, 다운로드’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었고, 타 기관과 달리 특이속성으로, 유적 건조물, 사적지, 시설 등에 대한 ‘위치정보’, 전자 기록물의 영상 파일에 대한 콘텐츠 ‘기술(技術) 정보’, ‘내용 정보(자막, 내레이션 정보, 언어 정보, 대본 정보), ‘저작권 정보(저작권자, 공공누리 저작권, CCL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리고 ‘원문 정보’의 경우 별도의 이미지 뷰어를 제공하여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서비스하고 있었다. 이어서 한국사 연구단체의 ㉕ ‘국사편찬위원회 포털’은 한국사에 관련된 다수의 DB로 구성되어, 키워드 ‘독립운동’ 통합검색 시 시스템에 따라 여러 유형의 정보자원(45,903건)을 제공하고 있었다. 정보자원의 다수는 종이 기록물과 시청각 기록물로, 기술 속성은 DB 혹은 웹 사이트마다 ‘기본 정보’와 함께 각기 다른 항목으로 구축되어 있었다. 예를 들면 근현대 인물 자료 DB는 ‘인물 정보’로 민족, 가족관계, 재산, 외모형 등을 기술하고, 번역 및 여러 기관의 정보를 재구성하거나 재해석하는 DB에서는 ‘참조 정보(참고 문헌 혹은 참고 자료)’를 기술 항목으로 포함하여 제공하고 있었다. 특히, 우리역사넷과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주된 정보자원이 집필자에 의해 재편집하여 생산한 전자 기록물(웹 페이지)이고 이들의 경우, 상하 카테고리 혹은 목차로 관련 자료를 서비스하며 ‘출처 정보(주석 등)’를 상세 기술 항목으로 다루고 있었다. 단, 이 DB는 검색 결과로 독립운동과 관련된 여러 DB와 정보자원을 동시에 전달하고 있어 자료의 확인 및 식별이 쉽지 않고, 원문 제공 시 번역본이 없거나 디지털화한 경우 기술 항목이 없어 정보자원에 대한 정확한 내용의 확인이 어려웠다. 마지막으로 백과사전의 기능을 가진 ㉖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종이 기록물과 행정 박물을 주된 대상으로, 전자 기록물의 경우 웹 페이지의 형식으로 제작되어 제공하고 있었다. 이들 정보자원은 사전의 역할을 위해 집필자 혹은 각 전문가에 의해 제작성 및 구성되어 있고, 이에 대한 기술 속성은 제목과 함께 시기와 시대를 명시한 ‘기본 정보’, 그 외 ‘집필 정보’, ‘평가 정보(의의, 평가)’, ‘배경 정보(이의)’, ‘참조 정보(참고문헌)’ 등을 포함하여 정보를 제공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DB의 검색 결과에서 독립운동과 관련성이 없는 정보자원, 단어 적합성(동의어)만 충족한 정보자원, 예를 들어 독립성분, 에스토니아(지명, 현대) 등이 포함되어 올바르게 정확한 검색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3.2 독립운동 정보자원 관련 데이터베이스의 실태 분석 및 고찰

3.1장에서 살펴본 조사를 통해 확인한 독립운동 정보자원은 생산의 목적과 시대의 범위가 명확하고, 주된 단일 주제 ‘독립운동’ 아래 다양한 유형, 관련 주제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재편집 및 해석되어 현재 방대한 양이 생산 및 활용되고 있다. 그리고 독립운동 정보자원 관련 DB는 기관의 목적과 기능에 맞춰 정보자원을 수집하여 각종 기술 항목과 검색/접근 방식을 적용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에 본 장에서는 앞서 진행한 조사를 바탕으로 독립운

동 정보자원 관련 DB를 크게 4가지의 관점 - ① 기술 대상에 따른 속성, ② 원문 및 번역(해설) 서비스, ③ 접근 방식에 의한 검색 결과, ④ 정보자원의 계층(군) - 에서 분석하여 고찰을 수행하였다.

우선, 독립운동 정보자원 관련 DB는 ① 기술 대상의 다양성에 따라 여러 속성을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다. 이들 속성은 독립운동 정보자원이 가진 성격과 특징, 이용 및 생산 목적, 1차 자료와 2차 자료의 형태 등에 맞춰 ‘기본 정보’를 중심으로 ‘위치정보’, ‘대본 정보’, ‘인물 정보’, ‘목차 정보’, ‘배경 정보’ 등이 작성되어 해당 정보자원에 대한 식별과 내용 확인이 가능하도록 서비스하고 있었다. 특히, 모든 DB에서 정보자원의 내용을 보여주는 ‘색인어, 주제, 분류’와 ‘시대, 연대’를 속성의 값으로 명시하고 있어 ‘독립운동’ 정보자원과 관련된/관련한 주제, 작성 및 이용 시기에 대해 포괄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교육적·학술적 가치를 가진 2차 자료를 같이 서비스하는 경우, 참조하거나 참고한 정보를 정확하게 기술하기 위해 ‘원문 정보’로 ‘집필자/기관’, ‘참고문헌’, ‘참고 자료’ 등을 필수 속성으로 제공하고 있었다(<그림 1> 참조). 이처럼 독립운동 정보자원 관련 DB에서는 여러 속성과 함께 ‘기본 정보’ 기술 항목을 명시하고 있으나 이들 속성에 해당 정보가 전혀 작성되어 있지 않거나 누락 되어있는 경우가 다수 확인되었다. 더욱이 일부 DB에서는 동일한 유형 및 내용을 가진 정보자원에 대한 속성 명칭이 기관마다 다르게 작성되어 이로 인한 검색 결과의 식별과 정확성의 결여, 기술 속성 및 메타데이터의 관리에 미흡함을 보이고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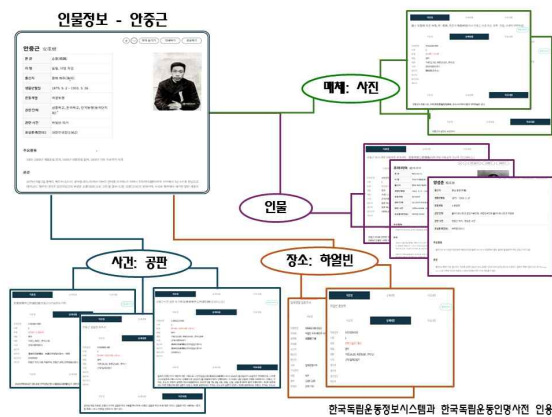
유형별 분류 아우내3.1운동독립사적지 (아우내3.1運動獨立史蹟址)	이름/별명 이름/별명	창작/출판 창작/출판	출판/발행 출판/발행
1947년에 유래한 당시 기사사료에 의해서 아우내 3.1운동 독립사적지(아우내3.1運動獨立史蹟址)로 지정 관련 주제어 · 색인어, 시대	분류 유적건조물 / 인물사건 / 역사사건 수량/면적 30,427㎡ 지정(등록)일 1986.11.19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산 74-2 외 9필지 시대 근대 수량자 (수량단위) 천안시 관리자 (관리단체) 천안시 사적관리과	본적/주소 평북 칠산초 예한면 동암리 1호 7호 직명 모살미수 주문 정역 5년 판결일자 19120928 사건 개요 광양, 선천, 신의주 등의 정거장에서 데라우치 총독을 살해하여 국권회복확대 하였으나 미수에 그쳤다. 원문본기 원문본기	당시나이 24세(7월 22일생) 판결기관 경성지방법원 생년월일 1912 관리번호 CJA0000060 M/번호 00930854
독립협회 獨立協會 역사 · 단체 · 개항기 · 대한제국기 1896년 광성에서 민족주의·민주주의 근대화운동을 전개한 정치·사회 단체. 단체명 설립 시기 1896년 해체 시기 1898년 창립자 서재필 창립지 서울 소재지 서울 발간지 대한민국 독립협회잡보(독립)	역사 · 단체 · 개항기 · 대한제국기 설립 시기 1896년 해체 시기 1898년	종목별 분류 아우내3.1운동독립사적지 (아우내3.1運動獨立史蹟址) 유형별 분류 유적건조물 / 인물사건 / 역사사건 수량/면적 30,427㎡ 지정(등록)일 1986.11.19 소재지 충청남도 천안시 동남구 병천면 병천리 산 74-2 외 9필지 시대 근대 수량자 (수량단위) 천안시 관리자 (관리단체) 천안시 사적관리과	기술 대상에 따른 속성 1) 동산과 부동산의 2천원을 가지고 있으나 생활은 곤란함 출전 1) 애정인물 1권 2) 컷도적 3촌 얼굴이 작고, 검은 피부에 마른 편임 선형 : 경술환 공산주의에 찬성하여 그 주의를 선전하는 경향이 있음 출전 1) 애정인물 1권
인물정보 더보기 자료명 자료내용 동학농민군 징수 작두 자료명 자료내용 동학농민군 징수 작두	시대 근대/개항기 생산지 생산지 생년월일 18940000 색인어 동학농민운동,작두	위치 정보 더보기 재산 인물평의 사회관계 참고문헌 애정시대인물사료	1) 呂運弘, 呂運亨, 金鎬, 黃錫禹, 李光宗, 元鍾麟 출전 1) 애정인물 1권

〈그림 1〉 독립운동 정보자원 관련 DB의 다양한 기술 항목

이어서 독립운동 정보자원 관련 DB는 독립운동 기록물의 원문, 원본 등을 디지털화하여 ② 원문 및 번역(해설) 서비스를 지원하고 있다. 다운로드(혹은 내려받기) 기능과 원본·원문에 대해 번역 혹은 해설 서비스를 기술 항목과 함께 제공하여 이용자가 원물(原物) 정보를 추가로 확인할 수 있도록 설계하고 있고, 시스템에 따라 이미지 전용 뷰어를 탑재하여 이를 통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축되어 있었다. 독립운동 정보자원은 국한문혼용체(國漢文混用體), 한자, 고어(古語), 일본어, 중국어, 필사 등으로 다양한 언어와 방식으로 작성되어 일반 이용자가 해석하고 이해하기 위해서는 원문 및 번역 서비스가 필요하다. 다만, 현재 번역 서비스를 실행하지 않거나 별도의 해석이나 설명없이 한자를 그대로 표기하는 시스템도 상당수 존재하고, OCR(Optical Character Recognition) 서비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정보자원에 대해 정확하고 쉬운 이해 및 판독에 한계점을 나타내고 있었다. 그리고

이들 DB에서는 ③ 접근 방식에 의한 검색 결과의 차이를 나타내고 있었다. 일반 이용자의 다방면적 접근을 위해 일반 검색과 상세 검색 외 분야, 유형, 시대, 인물의 특성(인물명, 죄명 등) 등 다양한 검색 방식을 설계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본 연구에서 각기 다른 접근 통로로 키워드 검색을 진행한 결과, 검색 결과가 0건이거나 동일한 결과물이 도출되지 않는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그리고 DB에 따라 ‘한국 독립운동’과 관련성이 현저히 낮은 정보자원이 구축되어 검색 결과로 제공되기도 하였다. 이는 ‘독립운동’ 관련하여 이용자가 원하는 다양한 유형, 내용, 시대 등의 정보자원이 구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검색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결과가 전달되는 것으로, 검색 편의성과 정보 접근성 향상을 위해 설계된 키워드 입력 기반의 검색 서비스가 올바르게 실행되지 않아 검색의 불완전성을 보여주고 있었다.

앞서 언급하였듯이 독립운동 정보자원은 19세기 후반부터 현재까지 생산 및 장기 축적되어 양적·질적으로 매우 방대하고, 역사적 맥락에서 독립운동과 관련된 인물, 사건, 지역/장소, 목적(배경) 등의 정보자원이 존재하며 서로 간의 연관성을 나타내고 있다(<그림 2> 참조). 이에 일부 DB에서는 주제에 대해 전반적인 문맥 파악을 가능케 하여 주된 정보자원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상하 카테고리나 목차를 기술 항목으로 나열하고 있었다. 대표적으로 ‘국가 기록 포털’에서 속성으로 ‘기록물 철/군’과 ‘기술 분류’를 설계하여 기록철 > 기록물군 > 기록물 계열 등의 항목을 제시하고(<그림 3> 참조), 계층(군)과 관련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이미지로 제공하거나 참고 정보(참고문헌)를 기술하고 있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살펴본 대부분의 DB에서 ④ 정보자원의 계층(군)은 제공되고 있지 않았다. 독립운동 정보자원은 다양한 매체로 제작되어 서로 간의 연계성이 높아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지만, 현 시스템에서는 참고 자료 외 해당 정보자원의 계층이나 레벨, 관계 카테고리 혹은 이와 같은 기능을 가진 속성을 구축하여 기술하고 있지 않았다. 다시 말해 여러 DB에서 독립운동 정보자원의 양적 구성과 다양성은 확보되어 있으나, 정보자원의 계층 및 상하 카테고리 설계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어 있지 않아 관련된 독립운동 정보자원으로의 전개 부족, 이로 인한 이용자의 지식 확장성, 관리자의 관리·보존 편의성에 부족함을 보이고 있었다.



<그림 2> 독립운동 정보자원의 관계 예시



<그림 3> 국가 기록 포털의 계층 예시

독립운동 정보자원은 단순히 과거의 산물이 아닌 우리나라의 주요 역사 기록물로, 과거부터 현재, 나아가 미래에 이르기까지 올바르게 전달·계승해야 하는 지식 정보이자 교육 자료, 국제 사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증거이다. 그러나 현재 독립운동 정보자원은 여러 기관에서 각각의 목적과 필요, 기능에 따라 관리 및 서비스되고 있는 한편, 유사한 정보자원이 혼재되어 있고 각 시스템에서 자체적으로 구축한 기술 항목에 독립운동 정보자원의 특수성 반영이 미흡하거나 명확하게 작성되어 있지 않아 정확한 검색과 정보 획득이 진행되고 있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의 시스템에 관련성이 있는 정보자원이 다수 존재하나 연관 자료 간의 계층 설정 및 상세한 기술 항목이

제공되고 있지 않아 단일 지식 정보로만 접근이 가능하였다. 따라서 앞으로 정확한 정보 검색과 획득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고 현 시스템을 통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자원에 접근하여 독립운동 관련 지식을 올바로 이해하고 확장하기 위해서는 독립운동 정보자원 관련 DB와 소장 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조사 및 분석, 정보자원 간의 관계성 검토가 면밀하게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다음에서는 2장과 3장에서의 조사를 토대로 독립운동 정보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발전 방향을 기술하였다.

4. 독립운동 정보자원의 이용과 관리를 위한 시스템 발전 방안 제언

독립운동 정보자원은 국내외 여러 기관에 의해 관리 및 서비스되며 현재 자체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및 웹사이트를 통해 접근 및 이용이 가능하다. 그러나 ‘한국 독립운동’과 이들 정보자원에 대한 분석 및 정리, 범주(인물, 사건, 활동, 장소 등) 정립은 아직 미흡한 상황으로, 식별/검색/획득을 위한 기술 속성, 계층(맥락), 관계 자료 등도 명확히 설계되어 제공되고 있지 않다. 이에 다음에서는 앞서 3장에서 살펴본 독립운동 정보자원 관련 시스템의 특성과 고찰을 바탕으로 이들 시스템의 올바른 관리와 보존, 활성화를 위한 개선 방안을 3가지로 간단히 제언하고자 하였다.

첫 번째, ‘독립운동 정보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과 계층 정리’가 진행되어야 한다. 독립운동 정보자원은 기관의 역할, 수집 대상 및 서비스 목적, 역사적 중요성, 행정적 필요성 등 여러 목적에 의해 구축된 DB를 통해 서비스되고 있다. 주요 DB에서는 정보자원을 디지털화하여 원자료(原資料), 디지털화된 데이터, 디지털로 생성한 웹 페이지(전자 기록물)를 제공하고, 독립운동 정보자원은 1차 자료 기록물과 함께 2차, 3차 자료의 형식으로 계속 생산되어 이들의 양과 유형이 매우 방대한 상태이다. 현재 이들은 국내외 국가·공공 기관, 민간 기관, 협회 등 여러 기관에 혼재되어 독립운동 정보자원 전반에 대한 파악이 명확하지 않고 기관별 소장 자원의 목록, 내용, 출처, 시대 등에 대한 정보가 아직 명료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 또한 독립운동 정보자원에 대한 계층 정리도 수행되어 있지 않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독립운동 정보자원은 ‘한국 독립운동’ 단일 주제 아래 사건, 인물, 장소(지역), 시기, 배경 등 상관성을 보이며 상하 계층(카테고리)으로 분류 및 구성이 가능한 정보자원으로, 다층적관계적 구조를 지니고 있다. 이에 일부 기관에서 계층 구조를 도입하여 기술 항목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DB에서는 독립운동 정보자원의 계층, 레벨, 단위 등을 적용하고 있지 않아 해당 정보자원에의 접근만 가능한 상황이다.

이용자는 대량의 정보자원 가운데 원하는 내용, 유형, 시기의 독립운동 정보자원을 획득하고 관련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 각 사이트에 모두 접근하여 교차 검색 혹은 개별 검색을 진행해야 한다. 다시 말해, 정보자원의 검색부터 식별, 획득까지의 과정 가운데 정보자원에서의 접근에서 번거로움과 불편함이 시작되면서 검색 편의성과 정확성, 독립운동 정보자원에서의 접근성, 지식 확장성에 한계를 가져오게 되고 궁극적으로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저하될 것이다. 따라서 독립운동 정보자원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지식 습득, 적극적인 활용을 위해서는 독립운동 정보자원 전반(기관, 자원, 유형, 매체, 출처, 시기 등)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및 검토와 함께 정보자원 간의 계층 정리와 설정이 수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독립운동 정보자원의 맥락적 연관성을 시각화하고 계층적 레벨을 반영할 수 있는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의 설계가 준비되어야 한다. 이들은 현재 각 기관에 혼재된 정보자원 혹은 기관 내 소장된 정보자원에 모두 적용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용자에게 원하는 정보자원과 관련성을 가진 정보자원에 좀 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이트의 기능을 제공할 것이고, 관리자에게는 정보자원 전반의 관리 및 보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할 것이다.

두 번째, ‘독립운동 정보자원의 이용, 관리, 보존을 위해 적절한 상세 기술 항목 및 메타데이터 설계’가 수행되어야 한다. 독립운동 정보자원에 관한 기술 항목, 메타데이터의 체계적인 설계와 기술은 이용자에게 검색 및 탐색 수단이자 관리자에게 관리 도구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그러나 독립운동 정보자원 관련 DB에서는 정보자원의

검색 서비스로 주제, 시대, 분야, 매체 등 다양한 검색 방식이 설계되어 있지만 동일 검색어에 대해 결과의 차이를 보이며 낮은 검색 정확도를 나타내고 있다. 현재 여러 DB에서 제공하는 독립운동 정보자원은 유형과 형태, 특성에 상관없이 기관에 의해 기술 항목이 설계되어 제공되고 있다. 검색 결과에서 기술 항목은 속성의 명칭, 구성, 내용(속성값) 등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으며, 단순 혹은 상세하게 작성되어 유사한 정보자원 간의 기술이 서로 다른 방식으로 나열되어 있다. 예를 들어 정보자원을 식별하기 위한 ‘고유 식별자(ID)’의 경우 제공되고 있지 않거나 자료 번호, 관리 번호 등으로 표현되고 있고, 정보자원에 대한 ‘내용’은 자세하게 기술하거나 상대적으로 작성되어 있지 않았다. 즉, 현재 독립운동 정보자원에 관한 메타데이터(기술 요소)는 기관에 따라 상이하고 일관된 형식으로 작성 및 구성되어 있지 않아 올바른 정보 전달과 검색 결과의 통일성에 미흡함을 보이고 정보자원에서의 접근 및 식별에 제한적인 상황이다.

독립운동 정보자원에 접근하여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고 체계적인 관리와 통제를 위해서는 앞서 언급한 독립운동 정보자원에 대한 분석, 계층 설계를 명확히 실행하고, 관리 및 서비스 기관 간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상세 기술 항목을 설계해야 한다. 특히 광범위한 독립운동 정보자원을 인물, 사건, 장소(지역), 시대, 배경 및 평가 등 같은 특성을 다각도에서 반영하여 각 기관의 특징에 알맞은 특정 항목을 설계하고, 유관 기관 간의 정보자원을 비교하여 통합적인 관점에서 기술 항목(메타데이터) - 기본 정보(제목, 시대, 주제어, 형태 정보, 발행 정보, 이미지 정보), 내용 정보, 계층 정보(관련 정보, 상하 단계 정보), 기술(技術) 정보 등 - 을 개발해야 한다.

세 번째, ‘독립운동 정보자원의 적극적인 활용을 위한 전문 플랫폼 구축’이 실행되어야 한다. 최근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독립운동(가)에 대한 재해석과 AI를 활용한 콘텐츠 제작 등이 활발해지면서 MZ세대부터 모든 세대에서 독립운동 정보자원에 관한 관심이 한층 높아지기 시작했다. 독립운동 정보자원은 역사 기록물의 경우, 한자, 이두, 일본어, 중국어로 기록되었거나 판독이 어려운 필사본으로 작성되어 디지털 이미지로 서비스되고 있다. 일부 기관에서는 자체 이미지 뷰어를 탑재하여 원문과 함께 번역본 혹은 해설을 제공하고 있으나 많은 DB에서는 이미지 단순 전달 및 확대 기능만 제공하고 있었다. 그리고 독립운동 정보자원의 방대함과 산재(散在)로 정보 획득을 위해 일반 이용자는 여러 사이트에 접근해야 하고 이들 검색 과정에서 제시되는 UI/UX는 이용자 중심의 디자인으로 설계되어 있지 않았다. 또한, 여러 지식 정보를 하나의 시스템에서 제공하는 경우 시스템 간의 정보자원 공유 및 연계망이 아직 완전히 구축되어 있지 않아 연구자가 아닌 역사적 배경이 충분하지 않은 일반 이용자가 원하는 독립운동 정보자원에 접근하여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식별하기에는 충분하지 못한 상황이다.

모든 세대의 이용자 접근성을 높이고 여러 기관에 분산된 독립운동 정보자원을 활발히 이용하기 위해서는 각 기관의 특징과 데이터베이스의 실태(검색 서비스와 UI/UX)를 면밀하게 분석하여 독립운동 정보자원을 주제, 시대, 형식 및 유형 등에 따라 카테고리 구조로 설계된 독립운동 지식 정보 전문 플랫폼을 구축해야 한다. 단순 검색 결과와 기술 항목에 의한 정보 전달이 아닌 키워드 기반 검색 서비스의 정교한 필터링 및 검색 알고리즘 개선이 필요하고 고도화된 번역 서비스 혹은 디지털 텍스트 변환(OCR)을 도입하여 DB와 웹 사이트를 통해 정보 전달이 가능할 수 있도록 디자인하고, K-역사 문화의 확산에 맞춰 다언어 서비스, 웹 접근성 서비스 등을 동시다발적으로 적용하여 전 세계 이용자가 접근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서비스가 설계되어야 한다.

5. 결 론

‘한국 독립운동’은 일제의 탄압 속에서 빼앗긴 주권 회복을 위한 투쟁이자 항거로, 35년의 일제강점기 동안 우리 국민은 국내외 수많은 독립운동을 통해 자주독립을 얻었다. 독립운동 정보자원은 독립운동에 관련된/관련한 정보자원으로, 과거부터 현재까지 다양한 유형의 단일 혹은 복수의 지식 정보로 생산되어 독립운동 정보자원 관련 DB에서 수집 및 관리, 보존과 이용이 진행되고 있다. 독립운동 정보자원은 역사적·정보적·증거적·교육

적 가치를 지닌 지식 정보이자 중요한 역사적 기록으로, 이들을 활용하고 학습하며 후대에 올바르게 계승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관리와 장기 보존이 필수적으로 진행되어야 한다. 현재 많은 기관에서 각 기관의 수집 목적과 운영 기능, 기술 대상 등에 따라 다양한 유형의 방대한 독립운동 정보자원을 자체 구축한 DB에서 제공하고 있으나, 독립운동 정보자원과 독립운동 정보자원 관련 DB 전반에 대한 조사, 관리 및 서비스 현황 분석은 아직 미흡한 상황이다. 그래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 독립운동’이 정확하게 전달되고 모든 세대의 관심이 더욱 향상될 수 있도록 독립운동 정보자원과 독립운동 정보자원을 관리 및 서비스하는 DB 및 웹 사이트 시스템을 실태조사 및 분석하여 이들의 특성을 다각도에서 고찰하여 앞으로의 발전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독립운동 정보자원 관련 DB에 대한 현황 조사 및 분석은 ‘한국 독립운동’의 정신 계승을 목표로 설립된 독립기념관에서 운영하는 ‘한국 독립운동 정보시스템’, 국가기관의 ‘국가 기록 포털’, 박물관/기념관 역할을 하는 ‘국가유산 포털’, 한국사 연구단체의 포털 ‘국사편찬위원회 포털, 백과사전 기능을 하는 ‘한국 민족문화 대백과사전’을 대상으로 3가지 관점 - 기술 속성(Descriptive attribute), 자원 유형/형태, 주제/시대적 배경 - 에서 간단히 살펴보았다. 독립운동 정보자원은 각 기관의 목적과 자원의 특성 및 유형에 따라 다른 기술 속성으로 구성되어 기술되고 있었다. 공통 속성 ‘기본 정보(자료명, 주제/분류, 형태사항(수량, 재질), 발행 사항 및 원문 이미지), 내용 정보, 참고·참조 정보’를 중심으로 기타 속성 ‘저작권 정보, 인물 정보, 위치정보 등’이 기관에 따라 활용되고 있고, 기본 정보에서는 주제(혹은 색인어)와 시간적 범위(시대, 시기, 연도 등)를 함께 명시하고 있었다. 이를 통해 확인한 독립운동 정보자원의 주된 주제는 3·1운동, 동학농민운동, 항일 의병, 대한민국 임시정부, 독립군 등이고, 시대적 배경은 근대와 근현대, 시기적으로 개항기, 대한제국기, 일제강점기에 집중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들의 유형/형태는 종이 기록물, 시청각 기록물, 행정 박물, 간행물, 전자 기록물 가운데 종이 기록물과 간행물이 가장 많았고, 이들은 대부분 디지털화 과정을 거쳐 웹 기반의 DB 시스템의 이미지 뷰어를 통해 원문 보기 및 다운로드 형태로 서비스되고 있었다. 다시 말해, 이들 DB는 소장 정보자원의 유형 및 특성, 기술 속성에서 조금씩 차별성을 가지고 있으나, 공통으로 유의미한 한계점 - ① 기술 대상에 따른 속성, ② 원문 및 번역(해설) 서비스, ③ 접근 방식에 의한 검색 결과, ④ 정보자원의 계층(군) - 을 보이고 있었다.

우선, ① 기술 대상에 따른 속성의 차이로 정보 획득성이 올바르게 못하다. 각 기관에서 설계한 기술 항목은 동일하거나 유사한 유형, 주제의 정보자원임에도 불구하고, 기관마다 속성 명칭 및 범위를 다르게 정의되어 있어 필수적인 기본 정보의 속성값이 누락되거나 미작성된 사례가 다수 확인되었다. 이는 독립운동 정보자원에 대한 메타데이터 비표준화와 관리 미흡을 나타내며 더불어 이용자의 정보 식별 및 검색 정확성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 정보 전달성과 정보 획득성에 대한 문제를 보이고 있었다. 그리고 ② 원문 및 번역(해설) 서비스로 인한 정보 접근성의 한계이다. 원문 해독 및 정보 접근성의 한계이다. 독립운동 정보자원은 사료의 경우 기록물 특성상 한자, 이두, 일본어, 고어 및 판독이 어려운 필사본이 높은 비중으로 작성되어 있어 일반 이용자의 가독성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원문 및 번역(해설) 서비스가 필수적이다. 현재 일부 시스템에서 이미지 전용 뷰어와 다운로드 기능을 제공하고 있으나, 여전히 번역 및 해설이 부재하거나 OCR(광학문자인식) 판독 오류로 인해 정보 접근에 한계를 나타내고 있었다. 이어서 검색 시스템의 불완전성으로 ③ 접근 방식에 의한 검색 결과에서 정보 접근성의 편차가 나타났다. 여러 상세 검색 및 분류 기반 검색이 설계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검색어 입력 시 접근 경로에 따라 결과가 상이하거나 검색 결과가 도출되지 않는 오류가 발견되었다. 그리고 동의어 처리의 한계로 인해 ‘독립 성분’, ‘에스토니아’ 등 독립운동과 무관한 정보자원이 검색 결과에 포함되는 현상도 나타나 정보 정확성에 미흡함을 보이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④ 정보자원의 계층(군) 및 구조의 부재로 인한 지식 확장성 저하이다. 독립운동 정보자원은 인물, 사건, 장소 등이 시공간적으로 긴밀하게 얽혀 있는 방대한 유기적 집합체이다. 그러나 일부 시스템을 제외한 대부분의 DB에서는 정보자원의 계층(군)이나 상하 카테고리, 자원 간 연계 구조가 적극적으로 도입되지 않고 속성으로 명시하지 않아 단편적인 정보 제공에 머무르고 있었다.

이처럼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운영하는 독립운동 정보자원 관련 DB를 활용하여 독립운동 정보자원 및 관련 시스템의 특성과 현황에 대해 조사 및 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러한 고찰을 바탕으로, 체계적인 관리와 보존, 그리고

이용 활성화를 위해 세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하고자 하였다. 첫째, 독립운동 정보자원에 대한 다각적인 분석과 다층적 계층 정리가 선행되어야 한다. 현재 여러 기관에 혼재된 정보자원의 목록, 출처, 시대 정보를 명료하게 재정리하고, ‘한국 독립운동’ 아래 사건, 인물, 장소, 시기 등이 유기적으로 연결될 수 있도록 관계형 데이터 모델링과 계층적 구조 설계를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둘째, 유관 기관 간의 협의를 통해 통합적 관점의 상세 기술 항목 및 메타데이터 표준화 설계를 수행해야 한다. ‘기본 정보’뿐 아니라 독립운동 정보자원이 가진 핵심 범주, 구조 - 인물, 사건, 장소, 시대, 배경 등 - 를 수용할 수 있는 계층 정보와 기술(技術) 정보를 다각도로 반영한 표준 메타데이터를 개발해야 한다. 셋째, ‘한국 독립운동’에 대한 모든 세대의 지식 확산을 위한 ‘독립운동 지식 정보 전문 플랫폼’을 진행해야 한다. 독립운동 관련 시스템 간의 분산된 독립운동 정보자원을 공유하고 연계망을 설정하여 역사적 배경지식 혹은 전문성이 부족한 일반 대중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세대의 이용자가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직관적인 UI/UX 디자인, 키워드 기반 검색 서비스의 정교한 필터링 및 알고리즘 개선, AI 기반 고도화된 번역 서비스 및 디지털 텍스트 변환(OCR)을 탑재한 전문 플랫폼을 개발해야 한다.

독립운동 정보자원 DB의 고도화는 단편적인 정보 전달 및 검색을 넘어 우리 민족의 역사를 체계적으로 보존하고 미래 세대와 세계로 확산하기 위한 필수 과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독립운동 정보자원 관련 DB를 통해 분석을 실시하였고 이에 따른 결과와 단계적 제언은 향후 국가 차원의 독립운동 디지털 아카이브 통합 플랫폼 구축과 메타데이터 표준화 정책 수립을 위한 실천적인 기초 지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본 연구는 독립운동 정보자원을 관리 및 서비스하는 모든 데이터베이스를 검토하지 못해 연구 대상이 제한적이라는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후속 연구에서는 본 연구를 바탕으로 독립운동 정보자원과 독립운동 정보자원 관련 시스템의 수집 및 광범위한 조사를 수행하고 이들 결과를 바탕으로 독립운동 정보자원의 특수성을 적용한 메타데이터 설계에 관한 본격적인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국가기록원 (발행년불명a). 독립운동의 전개와 의의. 독립운동 판결문.

출처: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troduction1.do>

국가기록원 (발행년불명b). 검색. 기록물 컬렉션. 국가기록포털. 출처: <https://www.archives.go.kr/next/newtheme/contentsList.do>

국가기록원 (발행년불명c). 독립운동 관련 판결문. 국가기록포털. 출처: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Main.do>

국가유산청 (발행년불명). 국가유산검색. 국가유산포털. 출처: <https://www.heritage.go.kr/main>

국사편찬위원회 (발행년불명a). 한국 독립운동의 민족사적 의의. 한국 근대 사료 DB.

출처: https://db.history.go.kr/modern/level.do?levelId=hdsr_010_0030_0020_0020

국사편찬위원회 (발행년불명b). 검색. 한국사 데이터베이스. 출처: <https://db.history.go.kr/>

국사편찬위원회 (발행년불명c). 검색. 우리역사넷. 출처: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

국사편찬위원회 (발행년불명d). 검색. 삼일운동 데이터베이스. 출처: <https://hgis.history.go.kr/samil/home/main/main.do>

국사편찬위원회 (발행년불명e). 검색. 전자사료관. 출처: <https://archive.history.go.kr/>

독립기념관 (발행년불명). 통합검색. 한국독립운동정보시스템. 출처: <https://search.i815.or.kr/main.do>

백재은 (2026). 친일기록 정보콘텐츠전반 실태조사 및 관리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57(1), 439-460.

<http://doi.org/10.16981/kliiss.57.1.202603.439>

서수리, 조우제 (2023). 독립운동디지털 아카이브 구축에 관한 연구. 한국독립운동사연구, 82, 335-376.

<http://doi.org/10.15799/kimos.2023..82.009>

오정희, 정연경 (2018). 독립운동 컬렉션 분류 체계 개발에 관한 연구: 공훈전자사료관을 중심으로. 한국기록관리학회지, 18(4),

99-124. <http://dx.doi.org/10.14404/JKSARM.2018.18.4.099>

유지희 (2024.08.15.). 활짝 웃으며 “대한 독립 만세”...유관순 열사 영상 관심 폭발. 한경 테크

출처: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143158g>

장우권 (2015). 학생 독립운동 지식정보자원관리에 관한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46(1), 203-239.

<http://doi.org/10.16981/kliiss.46.1.201503.203>

최남주 (2026.03.04.). 동화약품, 틱톨 크리에이터 ‘온오퍼와 협업’ ... “3·1절 맞아 브랜드 역사 알린다”. 서울타임즈뉴스

출처: <https://www.seoultimes.news/news/article.html?no=2000092781>

한국학중앙연구원 (발행년불명). 검색.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출처: <https://encykorea.aks.ac.kr/>

• 국문 참고자료의 영어 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Back, Jae-eun (2026). A study on the current status and management method of pro-japanese record information contents.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57(1), 439-460. <http://doi.org/10.16981/kliiss.57.1.202603.439>

Chang, Woo-kwon (2015). The management knowledge information resources of student independent movement under the rule of japanese imperialism. Korean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ociety, 46(1), 203-239.

<http://doi.org/10.16981/kliiss.46.1.201503.203>

Choi, Nam-ju (2026, March 4). Dong-Hwa Pharm, TikTol creator ‘Working with On Oppa’...“We announce the brand history on the occasion of March 1st”. Seoul Times News. Available:

<https://www.seoultimes.news/news/article.html?no=2000092781>

Korea Heritage Service (n.d.). Korea Heritage Search. Korea Heritage Portal. Available: <https://www.heritage.go.kr/main>

National Archives of Korea (n.d.a). The Development and Significance of the Independence Movement. The Independence Movement Judgment. Available: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Introduction1.do>

National Archives of Korea (n.d.b). Records Collection. National Archives Portal. Available:

<https://www.archives.go.kr/next/newtheme/contentsList.do>

National Archives of Korea (n.d.c). Court Judgment related to the Independence Movement. National Archives Portal. Available:

<https://theme.archives.go.kr/next/indy/viewMain.do>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n.d.a). The National Historical Significance of the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Korean Modern Historical Records DB. Available: https://db.history.go.kr/modern/level.do?levelId=hdsr_010_0030_0020_0020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n.d.b). Search. Database of Korean History. Available: <https://db.history.go.kr/>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n.d.c). Search. Historynet. Available: <https://contents.history.go.kr/front>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n.d.d). Search. The March 1st Movement Database. Available:

<https://hgis.history.go.kr/samil/home/main/main.do>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n.d.e). Search. Digital Archives. Available: <https://archive.history.go.kr/>

Oh, Jung-hee & Chung, Yeon-kyoung (2018). A study on the development of an independent movement collection classification system: Focus on the Gonghun digital archive.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Archives and Records Management, 18(4), 99-124. <http://doi.org/10.14404/JKSARM.2018.18.4.099>

Seo, So-ri & Jo, U-je (2023). A study on the construction of digital archive for independence movement. Journal of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Studies, 82, 335-376. <http://doi.org/10.15799/kimos.2023..82.009>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n.d.). Search. Encyclopedia of Korean Culture. Available: <https://encykorea.aks.ac.kr/>

The Independence Hall of Korea (n.d.). Search. Information System for Korean Independence Movement. Available: <https://search.i815.or.kr/main.do>

Yoo, Ji-hee (2024, August 15). Yoo Gwan-soon’s video clip explodes in interest. Hankyung Tech. Available:

<https://www.hankyung.com/article/202408143158g>